

대학생들의 자기계발과 사회적 이슈에 대한 반응*

시간강사, 타임오프제, 교내 환경미화원 문제를 중심으로

오찬호

서강대 사회학과 강사

〈논문요약〉

이 논문은 대학생들이 민주주의 이슈와 관련되는 사회적 논쟁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확인한다. 최근의 청년실업문제를 생각할 때, 대학생들은 비정규직 문제 등에 대한 적극적인 사회적 해결을 요구할 것 같다. 혹은 노동자들에 대한 아주 든든한 연대성을 표출해야 함이 마땅한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이들은 “무조건적인 연대는 거부한다!”고 매우 당당하게 말한다. 나는 대학생들의 이러한 인식이 어떤 상황에서 출발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했다. 이는 당연히 이들의 취업문제, 정확히는 이 문제에 대한 ‘해석’과 직결된다. 이 연구는 이를 보다 구체화한다. 대학생들은 ‘입학 순간부터’ 취업문제에 대한 고민에 빠진다.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당연시되는 사회적 분위기에 순종한다. 주목될 지점은 이러한 과정이 단순한 취업준비의 차원이 아니라, 자아의 성장을 위한 ‘자기계발’이라는 차원에서 행위자에게 각인된다는 것이다. 그 순간, 취

* 이 글의 일부가 문제제기 형태로 「2009 전기 사회학대회」(충북대학교, 2009. 6. 19~20)에서 발표된 바 있다.

업현실은 사회적 문제가 아니라 철저하게 개인의 차원에서 ‘극복’되어야 할 현실이 된다. 이 상황에서 사회구조의 모순에 관한 담론이 논의될 틈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것이 ‘스스로가 할 수 있는,’ 혹은 ‘스스로 해야 하는’ 의지의 차원에서 해석된다. 게다가 이들은 이러한 인식의 기반을 민주주의의 기초라고 이해하고 있기에, 이러한 시각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평가하는 것에 어떠한 부담감도 존재하지 않았다. 이 연구는 이 상황에 대한 구체적 질문을 던진다. 도대체 대학생의 자기계발은 어떤 스타일이며 어떻게 구축되었을까? 그리고 이러한 자기계발 스타일을 바탕으로 이들은 여러 사회적 논쟁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 **주요어:** 대학생, 민주주의, 취업문제, 자기계발, 비정규직 노동자

1. 들어가며: 왜 사회적 이슈와 자기계발 스타일을 함께 보는가?

이 연구는 대학생의 자기계발 스타일과 이들이 민주주의 이슈와 관련된 시사논쟁에 반응하는 맥락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찾는다. 먼저 이 논문의 문제의식이 어떻게 등장했는지를 가볍게 소개한다. 지난 2008년 6월, 경기도 소재의 모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중에 당시 장기파업으로 큰 사회적 주목을 끌었던 ‘KTX 여승무원 고용문제’를 언급했다.¹⁾

1) ‘KTX 여승무원 파업’이란 2006년도 3월부터 철도공사 정규직 직접채용, 체불임금 지급, 인력충원 등을 요구하며 승무원 350명이 파업을 시작한 것을 말한다. 공사 측의 강력한 대응으로 인해 이 문제는 오랫동안 사회적 갈등의 대표사례로 소개되었는데, 2010년 8월 26일, 서울중앙법원에서 근로자지위확인청구소송을 낸 승무원 측에게 승소판결을 내리면서 재차

강좌명이 『인권과 평화』였던 만큼, 이 논의에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상황에 관심을 가지는 사회적 연대가 지극히 타당하다는 전제가 약간 깔려 있었다. 하지만 첫 번째로 나에게 지목을 당했던 한 학생의 대답은 나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경영학과 4학년 학생이었던 K(27세)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날로 정규직 되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라고 말했다. K는 “처우개선과 정규직 전환의 문제는 전혀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학생들이 왜 이렇게 고생을 합니까? 정규직이 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입사할 때는 비정규직으로 채용되었으면서 갑자기 정규직 하겠다고 떼쓰는 것은 정당하지 못한 행위인 것 같습니다”라는 부연설명도 곁들였다. 더 놀라운 것은, 그의 의견에 다수의 대학생들이 동의를 했다는 것이다. 결국, 이날 강의는 K의 의견이 기폭제가 되어, KTX 여승무원 파업에 대한 사회적 연대에 관한 논의가 아닌, ‘KTX 여승무원 정규직 전환요구 정당한가?’라는 찬반토론으로 이어졌다. 물론, 찬성은 강사인 나를 포함한 소수였고, 반대의견이 압도적이었다.

이 에피소드는 나에게 하나의 연구주제로 기억되었다. 특히, 관심을 가진 것은 단순히 특정사건에 대한 그들의 반응 자체라기보다, 이들이 어떤 근거로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당시의 대학생들은 (스스로들이 정의하는) ‘민주주의’라는 가치 안에서 본인들의 판단에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 연구가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민주주의 모델을 찾는 것은 아니다. 이는 보통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개념적으로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²⁾ 대신 본인의 특정한 ‘사례’를 민주주의라는 추상적 개념과 함께 덧칠하여 설명하는 것은 능숙하다. 이는 “민주주의는 무엇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일반인

사회적 주목을 받은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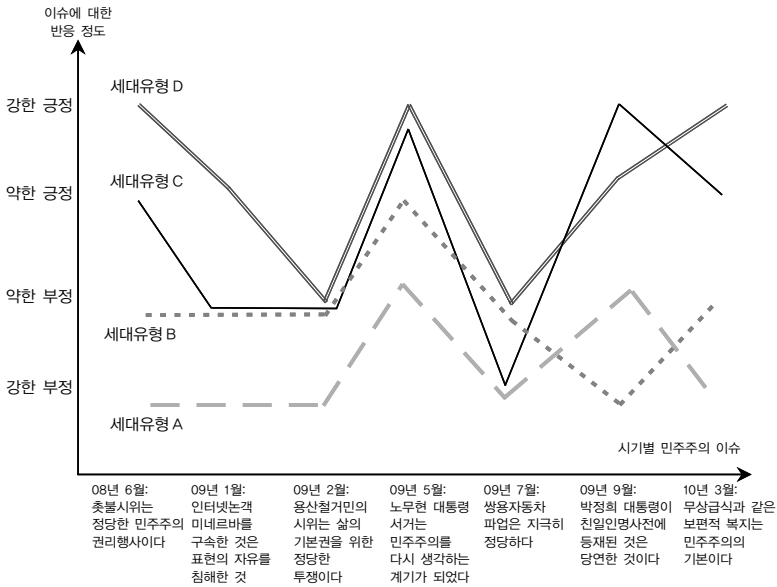
2) 이에 대한 바버(Barber 1996, 355)의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를 토론하는 것이다”라는 입장은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명확한 규정성’을 가지기가 얼마나 힘든지를 잘 대변해 준다.

들에게 매우 낯설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래도 되나요?”라는 식의 언급은 일상에서 자주 나타난다는 뜻이다. 내가 관심을 가진 지점은 대학생들이 비정규직 노동자 파업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그것을 ‘어떤 상황에서’ 민주주의라는 차원으로 해석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1980년대 대학생들은 민주주의라는 것을 일상에서 일어나는 폭력적인 국가통제로부터 떠올렸다(오찬호 2010c). 즉, 민주주의를 ‘무엇이다(민주주의의 국가는 모든 국민을 평등하게 대한다)’라는 명확한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무엇이 아닌 것이다(국민을 억압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비교’의 차원에서 이해했다는 거다. 즉, 일상의 경험으로부터 유추된 민주주의 상(像)이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의 대학생들도 이와 같은 이해의 틀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 후, 이 문제의식은 말 그대로 ‘가설’로서만 존재했다. 이 와중에 다음의 연구를 진행하면서 이 가설을 구체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2008년 6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진행된 『후기청소년 세대들이 ‘민주주의 이슈’를 이해하는 방식에 대한 연구』(오찬호 2010a)는 사회적 진출이 지체되고 있는 오늘날의 대학생들을 후기청소년 세대라고 규정한 다음, 이들을 네 가지로 유형화해서, 이 유형들이 민주주의와 관련된 논쟁지점을 야기하는 7개의 사회적 이슈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30명에 대한 참여관찰, 8명에 대한 심층인터뷰 및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그림 1>과 같이 분석했다.

이 연구의 가장 큰 특징은 한국의 대학생들이 그 유형이 무엇이든 간에, 그림 안의 곡선처럼 말 그대로 ‘일관되지 않은’ 반응을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C, D유형은 2008년도 촛불시위를 민주주의 권리행사의 차원에서 이해하면서도 용산철거민 화재사건을 삶의 기본권을 위한 정당한 투쟁으로 이해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이 유형들은 박정희 대통령이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되는 일이라든지, 무상급식 논쟁에서는 매우 진보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한다. 또한 C, B유형이 인터넷 논객 미네

〈그림 1〉 민주주의 이슈에 대한 대학생들의 반응



※ 출처: 오찬호(2010a, 237)

르바가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구속된 것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약간의 ‘보수적 입장’에서 이해하면서도,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했을 때는 이를 (어떤 식으로든) 민주주의와 연관해서 해석하는 것도 주목된다. 이처럼 대학생 세대들은 여러 민주주의 이슈에 대해 자기들 ‘안’에서도 다양한 논의구도를 형성했고, 그 구도 역시, 시간성이라는 변수 앞에서 매우 가변적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변화무쌍한 반응에서도 공통된 지점이 확인된다. 그것은 쌍용자동차 파업이 있었을 때, 모든 유형들이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파업이 정당하지 않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것이다.³⁾ 그런데 이런 의견을 개

3) 여기서의 반응이라는 것은 물음에 대한 단순한 응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심층인터뷰를

진한 사람들이 촛불시위를 긍정적으로 이해하거나(C, D유형), 혹은 노무현 대통령 서거 때 민주주의를 다시 생각했다는 것(B, C, D유형)은 사뭇 일반적인 사람들의 대답패턴하고는 다르다는 느낌이다. 오히려 이들은 “해고자에 대한 사회적 연대가 왜 의무인가요?(D유형)”라고 따진다. 이들은 자신들이 미네르바 구속을 반대하든, 용산철거민 화재 사건을 공권력의 잘못이라고 주장하든 그것이 비정규직 문제를 이해하는 어떠한 인과성도 되지 않음을 확실히 했다. 이유는 간단했다. “솔직히, (파업하는 사람에게 정규직이라는 지위 자체를 주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요. 제가 지금 비정규직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는데 저렇게 무조건 정규직을 요구하면 안 되죠(B유형)”, “(억지주장이) 안스럽다(A유형)”는 고백처럼(오찬호 2010, 236-243), 후기청소년 세대들은 ‘비정규직이 되지 않기 위한’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 혹자는 이를 유아기적 보상심리라 비판할 것이다. 하지만 이는 ‘그만큼 정규직에 집착할 정도로’ 이들의 취업현실과 이로 인한 심리적 불안감이 상상을 초월한다는 뜻이자 앞서 소개한 강의 중 학생의 답변이 결코 우연적인 것이 아니라는 증명이기도 하다.

여기서 주목할 지점은 이들이 ‘내가 지금 고생하고 있는 현실’을 중요한 근거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이 현실은 일련의 ‘자기계발’과정이다. 취업포털 커리어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학생의 54%가 입학 전부터 취업을 걱정한다. 그리고 이를 위한 ‘준비’를 외국어공부, 학점관리, 자격증 취득 등으로 준비한다. 이들은 취업과 테크놀로지의 합성어로서 취업스펙을 쌓는 고도의 기술을 의미하는 ‘취테크’에 대해서 90.7%가 필요하다고 대답한다(조선일보 2011/02/23). 이들에게 자기계발은 취업을 위한 ‘준비’에 해당하는 모든 것이다. 나는 이 ‘과정’을 좀 구체적으로 보고자 한다. 도대체 대학생들의 자기계발은 어떤 스타일일까? 그리고

통해서 ‘드러난’ 여러 지점들에 대한 일련의 패턴을 해석자가 분석한 것을 말한다.

이런 자기계발 스타일을 바탕으로 이들이 이해하는 민주주의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 제2절은 이러한 질문에 이론적 개념을 첨가한 것이고, 제3절은 연구과정, 제4~6절은 분석결과이다.⁴⁾

2. 자기계발 트렌드를 과연 의심할 수 있는가?

현대사회는 단연코 ‘자기계발의 시대’이다. 최소한 그렇게 ‘진단’은 되고 있다(김정은 2007, 1; 방승배 2007; 장희정 2006, 1; 전상진 2008, 103; Rimke 2000, 14). 이러한 자기계발은 분과별로 다양한 차원에서 논의되는데, 이에 대해 전상진(2008, 105)은 경영학은 조직적응의 차원에서, 심리학은 개인의 자아치료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교육학은 평생학습과 결합하여 자기계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전상진은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다음과 같은 비판적 질문을 던진다.

이러한 분과학문들의 연구들은 중요한 공통점을 보여준다. 어떻게 하면 자기계발을 잘할 수 있을까? 이를 위해 더 효과적이고 좋은 프로그램은 무엇일까? 요컨대 그들은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천 같은 방법적이고 기술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춘다. 이것은 결국 이들이 자기계발을 자연스러운 것, 어쩔 수 없는 변화에 따라 모든 개인들이 필연적으로 해야만

4) 이러한 논지전개에 고개를 가우뚱하시는 분들이 많을 듯하다. 왜냐하면 2011년 초, 대학생들의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태도가 매우 긍정적이라는 분위기가 여러 곳에서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몇 년간 고려대, 동국대, 성신여대, 동덕여대 등의 학생들은 ‘청소노동자’ 처우개선을 둘러싼 노동자와 학교 측의 대립에서 적극적인 ‘노동자 지지’를 보여준 바 있다(시사 IN 2010/01/21). 분명 여론은 대학생들의 엄청난 ‘서명’에 관심이 있어 보인다. 하지만 이것은 오히려 ‘지금까지’ 노동자들의 상황이 너무나 절망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생들이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반증 아니겠는가.

하는 것으로 전제함을 보여준다(전상진 2008, 105).

이 의문은 사회학적으로 지극히 타당하다. 서동진(2009)은 현대판 자기계발을 신자유주의 사회에 어울리는 인간형 구조조정의 결과라고 혹독하게 비판, 그러나 예리하게 분석한다. 이러한 접근들은 피터 버거(Berger 1963)가 말한 사회학적 관점 중 하나인 ‘친숙한 것을 낯설게 보기(seeing the strange in the familiar)’의 차원에서 세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래서 ‘자기를 ‘계발(啓發)’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개발(開發)’되어야 하는지를 맹목적으로 강조하는 것’을 문제삼을 수 있다.

이 질문이 아무리 사회학적 의심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기계발의 열풍을 단순히 부정적으로만 규정하기에는 상당한 거부감이 든다. 그래서 당연히 상기질문은 “지극히 사회학적 관점에서 고의적으로 투사(projection)된 진단에 불과하지 않은가?” 하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현대사회의 자기계발 열풍을 필연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면, 도대체 이를 ‘잘’ 할 방법을 가르쳐 준다는 것을 왜 문제삼는지 의아해할 것이 분명하다. 그만큼, 서점의 인기코너를 차지하고 있는 자기계발 서적들(ex. 『내 인생의 탐나는 자기계발』, 『무지개원리』, 『시크릿』 등), 대학의 인기 교양강좌로 자리 매김하고 있는 자기계발 강좌들(ex. 『자기계발과 리더십』, 『직업과 자기계발』, 『21세기형 자기계발』, 『자기계발과 자기치유』 등)은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주제를, 그리고 ‘반드시’ 실천해야 되는 듯한 목록을 전달한다. 그리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 최소한 자신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느낌을 누구나 가질 것이다. 그만큼, 현대사회의 대중들은 자기계발을 ‘기계적 개발’의 차원에서 이해하지는 않는다. 물론 그 과정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기계적일지 몰라도, 이를 ‘자기계발’이라는 담론으로 덮어버리는 순간 그건 긍정적이고 친숙한 영역이 된다.

자기계발을 실천하는 행위자들의 이런 분위기는 이 현상에 대한 사

회학적 접근을 힘들게 했다(Lichterman 1992). 자기계발의 동력을 사회·문화적 토대라는 거시적이고 전 사회적인 변화와 연결하는 분석은 2000년도 이후에나 서서히 등장한다(권오현 2005; 김정은 2007; 박소진 2009; 서동진 2005; 장희정 2006; 전상진 2008; Edward 2002; Hazleden 2003; Rimke 2000; Rose 1998). 최근의 연구들의 특징은 푸코(M. Foucault)의 자기테크놀로지(Technologies of the self) 논의를 수용·비판·응용·재해석한다. 푸코의 자기테크놀로지 개념은 “행동의 지휘(conduct of conduct)”⁵⁾를 의미한다. 즉 개별인간들이 스스로 ‘주체적인 행동’이라고 느껴지는 것이 사실은 (누군가의) 지휘영역에 있다는 것이다. 푸코는 이를 ‘스스로에 대한 통제(self-government)’라고 설명한다(Foucault 1991). 푸코의 이러한 접근에 기인하여 많은 연구들이 일종의 정신적 부분(mentality)까지 자연스럽게 통제(govern)하는 ‘통치성(통치양식)(Governmentality)’의 다양한 양상을 자기계발이라는 시대적 화두와 함께 설명한다.

자기계발에 대한 이론적 논의가 무엇이든, 중요한 것은 행위자들이 자기계발을 긍정적인 맥락에서 이해한다는 것이다. 나는 이 실천논리(logic of practice)에 주목한다. 그래서 본 연구는 상기 언급된 자기계발에 대한 사회학적 선행연구들을 심화·발전시킨다. 기존 연구들은 ①자기계발을 거시적이고 사회적 변화와의 연결에 초점을 맞추거나, ②자기계발 실천의 구체적인 과정을 주목한다. ①과 ②를 혼용하면 매우 간단한 질문이 도출된다. “마치 운명처럼 강요되는 자기계발을(①번), 행위자들은 어떤 맥락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것일까?(②번)”

그렇다면 행위자들이 자기계발 수행을 어떻게 하는지를 파악하는 것만으로 이른바 자기계발 ‘실천논리’를 제대로 알 수 있을까? 아마도 이러한 접근은 행위의 표피적 외연만을 주목하는 경우가 될 것이다. 자

5) 이 개념에 대한 번역은 약간씩 다르다. 예를 들어, 박소진(2009, 16)의 경우 이를 ‘행위에 대한 인도’로 번역한다.

기계발에 대한 사회학적 의심의 완성은 “도대체 그러한 실천논리가 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 연구는 “세대사회학”적 패러다임을 자기계발 현장에 투입한다.⁶⁾ 우리는 비슷한 연령대, 혹은 특정한 사회집단의 구성원들이 특정한 ‘분위기’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결속된 행위양식을 보여줄 때, 우리는 이를 ‘세대’라는 개념으로 표현한다. 세대는 특정 사건에 대한 반응으로 동일한 정체성이 체화된 집단을 말한다. 세대연구는 세대를 가족단위(kinship), 생애주기(life stage), 출생코호트(birth cohort), 역사적 단계(historical period) 등의 변수를 바탕으로 구분하지만(Kertzer 1983), 가장 일반적인 세대구분은 출생 시기에 주목한 구분이다. 그래서 ‘동일한 경험을 공유하는 동년배의 특성’이 가장 보편적인 세대정의로 사용된다.

하지만 세대라는 개념을 통해 사회적 행위자의 특성을 하나로 묶는 것은 참으로 어려움이 많다. 왜냐하면 아무리 특정 세대를 설명하는 여러 변수가 등장한들, 그 조건을 충족하는 세대구성원의 한마디, 즉 “나는 그렇지 않은데~”라는 반문 하나면 세대의 오류는 입증되기 때문이다(변희재·여원동 2008, 42-43). 예를 들어, 1980년대에 대학생활을 보낸 1960년대 출생자들을 ‘386세대’로 십사리 규정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다. 오늘날의 대학생들을 무조건적으로 ‘88만원세대’로 규정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는 세대연구가 피해갈 수 없는 ‘모든’과 ‘어떤’의 딜레마이다(우석훈·박권일 2007, 90-94). 그래서 아무리 세대개념을 명확하게 사용한다고 하여도 이것이 행위자 ‘모두’를 설명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러나 세대를 사회학적 맥락에서 최초로 해석한 칼 만하임(Karl

6) 여기서 등장하는 세대사회학적 패러다임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연구자의 이전 출처(오찬호 2009, 365-366; 2010a, 219-222; 2010b, 59-61; 2010c, 51)에서 언급된 내용을 이 연구의 맥락에 맞게 재구성한 것이다.

Mannheim)은 이미 이러한 딜레마를 주의할 것을 당부한다. 그는 「세대위치(generation location) → 세대맥락(generation as actuality) → 세대단위(generation unit)」라는 세대형성 도식을 바탕으로 ‘모든’ 세대를 읽어내고자 했다. 물론 이 도식에서 완성된 세대라고 할 수 있는 ‘세대단위’로서의 세대는 하나의 ‘어떤’ 세대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는 동일한 상황에 대해서 ‘다르게’ 반응하는 또 다른 어떤 세대에 주목했다. 그리고 만하임은 이러한 다름을 가능하게 하는 변수를 찾고자 했다. 그는 제1차 세계대전 후의 청년문화의 특징을 세대변수로 읽어낸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 변수들, 특히 도시와 시골이라는 공간적 변수의 차이에 따라 각기 다른 ‘경험의 성층화(stratification of experience)’가 이루어지는 것에 주목한다. 그래서 만하임은 ‘전쟁 후 변화’라는 아주 넓은 의미의 경험은 공통적인 것이지만, 그것이 특정한 기억으로 축적되는 모습은 세대의 상황에 따라서 매우 다양할 수 있음을 주목한다. 이렇게 동일한 경험이 어떤 식으로 의미화되느냐에 따라 세대단위의 특성은 결정된다. 이는 동일한 상황에서 ‘여러 세대’가 등장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만하임 역시 이를 피터슨의 논의를 바탕으로 접근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가장 활발한 유형(leading type)에 주목하지만, 상황에 따라 우회하거나(diverted type), 혹은 억압받는(suppressed type) 세대도 존재한다는 것이 만하임 세대이론의 핵심이다(Mannheim 1927, 57-58).

지금까지의 세대명칭은 엄격한 사회과학적 용어로서 다루어지기보다는 저널 위주에서 소비문화를 설명하는 감각적 차원에서 작명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리고 세대의 화합과 통합을 암묵적으로 강요하는 사회분위기 때문에, 이를 극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견고한 세대를 설정하여 세대 ‘간’ 차이만이 부풀려졌다(이명진 2005, 16-17). 하지만 최근의 분위기는 무작정 특정한 세대만을 설정하는 것을 경계한다. 몇몇의 연구들을 보면 세대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형성될 수 없다는 것과 실사순차적 흐름이 있다고 할지라도 단순히 경험의 공유만이 세대형성의 ‘절대

적 전제조건'이 될 수 없음을 지적한다(전상진·정주훈 2006; 오찬호 2009).

이처럼 세대연구는 경험의 공유가 어떻게 다른 성층화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전혀 다른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토대로 어떻게 구축되는지를 이해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이는 단순히 “세대가 무엇인가?”라는 질문만이 아니라, “세대가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게 한다. 이처럼 세대사회학은 세대 ‘간’의 차이이든, 세대 ‘내’의 차이이든 이를 ‘경험의 성층화(stratification of experience)’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의미의 중요성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 그렇다면 앞서 언급된 자기계발을 이해하는 맥락의 근거는 이러한 경험의 축적과정으로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이 과정을 민주주의적 담론과 논의될 수 있는 여러 사회적 이슈에 대한 대학생들의 반응을 바탕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3. 어떻게 연구하였는가?

〈표 1〉은 이 연구의 진행과정을, 〈표 2〉는 인터뷰 대상자들의 세부 사항을 나타낸다.

〈I단계〉는 자기계발 수행자들이 본인들의 실천모습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구체적인 ‘지점’을 확인한다. 이를 위해, 나는 자기계발 커뮤니티 운영자와의 접촉을 시도했다.⁷⁾ 〈II단계〉는 정성적 분석의 과정을 보

7) 자기계발 커뮤니티를 선택하는 과정은 많은 어려움을 야기했다. 주요 포털사이트의 커뮤니티에는 자기계발과 관련된 온라인 모임이 무수히 많다. 2009년을 기준으로 Daum-491개, Naver-451개, Cyworld-325개의 커뮤니티가 활동하고 있다. 이 중에서 커뮤니티 활동기간 2년 이상, 가입자 200명 이상, 그리고 최근 6개월간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커뮤니티를 유의미한 조사대상으로 설정했다.

〈표 1〉 연구과정 개괄

단계	연구 내용	세부사항	기간
I	자기계발 커뮤니티 운영진 심층인터뷰	• 커뮤니티 운영자(운영진)를 만나서 자기계발의 세대별 유형 및 맥락파악(2명)	09.2~3.
II	세대별 자기계발 수행자 심층인터뷰 (Flip-Flop 인터뷰)	• 세대별 자기계발 수행자들에 대한 심층인터뷰(8명)	09.4~6.
III	88만원세대의 민주주의 이슈 이해방식에 대한 심층인터뷰	• 대학생 심층인터뷰 (8명 - II 단계 4명 포함)	10.4~7.

〈표 2〉 인터뷰 대상자 세부사항

유형	성별	나이	특징	이름(가명)
자기계발 커뮤니티 운영자	남	49	운영자 활동 4년, 현재 개인사업	전광진
	남	23	운영자 활동 1년 후 현재 공익근무 중	권대진
자기계발 수행자 (386세대)	남	47	당시 부총학생회장 - 현재 학원강사	권성진
	남	46	당시 이념서클회장 - 현재 회사원	정성훈
	여	42	당시 총학생회간부 - 현재 시민단체 근무	이미진
	여	47	당시 총학생회간부 - 현재 전업주부	유희원
자기계발 수행자 (88만원세대)	여	25	4년제 대학 졸업, 현재 대형마트 아르바이트 중	박소미
	남	30	2년제 대학 졸업, 현재 무직	김상호
	남	30	현재 10학기, 공무원 시험 준비 중	강 솔
	여	22	4년제 대학 졸업, 현재 공무원 시험 준비 중	이한샘
	남	28	4학년, 대기업 취업준비 중	오제호
	남	25	2학년, 공사 입사 목표로 준비 중	김경택
	여	23	4학년, 어학연수 준비 중	김성은
	여	20	1학년, 임용고사 준비 중	황혜영

다 심화시키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다. 지금까지, 이 연구가 대학생들의 자기계발 스타일을 파악하고 이러한 메커니즘을 경험의 성층화라는 차원에서 여러 사례를 살펴보면서 분석한다는 것을 밝혔다.

하지만 연구결과를 보다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비교집단이 필요하다.⁸⁾ 이 연구에서 언급되고 있는 대학생들은 전형적인 ‘88만원세대’이다. 우석훈과 박권일은 현재의 20대들이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하는 사회적 구조에 주목하여 ‘88만원세대’ 담론을 촉발시켰다(우석훈·박권일 2007). 청소년기 이후 사회적 진출이 늦어지는 것은 ‘대학’이 등장한 이후 항상 존재했지만, 최근의 특징은 그 기간이 ‘너무나’ 길어졌다는 것과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것이다. 2009년도 자료에 따르면 20대의 실업률은 8.1%이다. 이는 전체 실업률 3.7%에 비해 2배가 넘는 수치다. 여기에 구직단념자, 취업준비자 등을 포함하면 실업률이 무려 20%에 육박한다(조성주 2009, 91). 경제활동을 포기하여 비경제활동 인구로 분류되는 20대는 2008년에 비해 19.8%가 증가했다. 대학생 중 39.3%가 휴학을 통해 ‘졸업 유예’를 선언한다(연합뉴스 2009/09/21). 그들의 평균 졸업 소요기간은 5년 3개월이다. 졸업 후 취업까지는 평균 11개월이 걸린다(뉴시스 2009/07/29).⁹⁾

『88만원세대』 저자들은 이 현상이 쉽사리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한다. 원인으로서는 지금의 기이한 경제구조를 구축시킨 386세대의 활약이 지금부터 본격화되고 있다는 것을 제시한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
- 8) 물론 이 연구가 단순히 “연령에 따라 자기계발의 모습이 다르지는 않을까?”하는 싱거운 물음을 던지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연령별로 확인할 수 있는 자기계발 스타일이 “다르다”는 것은 굳이 사회과학적 관점을 숙지하지 않아도 누구나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매우 표면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대는 토익공부 등 취업을 위한 스펙관리차원에서, 40대는 문화·여가와 관련된 교양적 차원에서 자기계발을 추구할 것이다. 이 연구는 ‘그러한’ 자기계발의 스타일을 만든 상황이 민주주의 이슈를 이해하는 데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 9) 대학 졸업자의 사회적 진출이 유예된다는 것에 대한 수치적 설명은 연구자의 이전 저서(오찬호 2010a: 222)에서 언급된 바 있다.

20대들이 이 구조적인 위기를 고작 자기들끼리의 ‘경쟁’을 통해 헤쳐 나가고자 하는 문제를 지적한다. 그래서 저자들이 보기에 경제적인 지불능력과 상징적 자산을 갖추지 못한 지금의 20대들이 이 구조에서 개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물론 이 세대명칭이 ‘모든’ 대학생들을 설명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88만원세대는 최소한 ‘사회적 저항성’이라는 변수를 바탕으로 ‘어떤’ 세대를 설명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그렇다면 이 세대에 대한 설명은 역으로, 88만원세대와 가장 대척지점에 있는 세대에 대한 고의적인 비교로서도 가능하다. 당연히 ‘386세대’가 여기에 해당된다. 386세대는 사회적 모순에 정면으로 대항하면서 절망의 1980년대에서 강력한 사회적 저항을 바탕으로 희망을 실현해낸 민주화운동 세대라고 평가받았다(박길성 2003, 229; 안철환 2000, 52; 은수미 2003, 222).

이 연구의 <II 단계>에서는 ‘급전환 질문(flip-flop interview)’을 바탕으로 지금의 대학생을 386세대와 비교했다. 이 질문기법은 고의적으로 극단의 상황을 질문하는 것이다(오찬호 2007, 420). 즉 인터뷰이의 말꼬리를 노골적으로 과장시켜 그것의 진정한 속뜻을 확인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 “대학생의 자기계발을 그렇게 해석하셨는데, 40대 경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인터뷰이들은 ‘차이’를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 상황을 다시 구조화하는 경향이 있다. ‘급전환질문 기법’은 이 간격의 맥락을 확인하는 데 유의미하다. <III 단계>는 이 연구의 가장 직접적인 주제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이전 연구와 마찬가지로, 민주주의와 관련된 논쟁을 야기할 수 있는 사회적 이슈에 대한 반응을 이들 세대에게 확인하고자 세 가지 사회적 이슈에 주목했다. 하나는 2010년 5월 25일에 자살한 조선대학교 시간강사 故 서정민 씨 사건이며, 다른 하나는 2010년 여름 140일간 파업이 진행된 (주) KEC의 구미사업장에서의 노사갈등에 관한 것이다. 전자는 비정규직 시간강사의 처우개선이라는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사회적 연대에 대한 대학생들의 생각을 유추해보고자 했다. 후자는 비정규직 문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지만, 타임오프제 등을 놓고 노·사 간의 대립이 첨예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 연구의 방향과 유사한 지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접근을 종합적으로 확인한다는 차원에서, ‘대학교 환경미화원 노동자 부당해고’에 대한 대학생들의 반응을 확인했다. 이 이슈는 2008년 8월, 성신여자대학교 환경미화원의 부당해고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주목을 받았는데, 단순히 특정시기로 제한하지 않더라도 이는 최근까지 대학가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대표적인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라 할 수 있다. 이 연구가 대학생들에게 많은 비중을 두는 만큼 이는 인터뷰 대상자들이 평소에 직·간접적으로 접할 수 있는 이슈라 판단했다.

4. 대학생들의 자기계발 스타일은 어떠한가?

여기서는 자기계발에 대한 사회학적 접근을 시도한 선행연구들의 분석틀을 바탕으로 대학생들과 386세대의 자기계발 스타일을 확인한다. 장희정(2006)과 김정은(2007)은 채펠 외(Chapell et al. 2003)의 논의를 바탕으로 자기계발 수행자들의 모습을 자기알기(knowing oneself), 자기배려(caring for oneself), 자기통제(controlling oneself), 자기(재)창조((re)creating oneself)의 개념을 바탕으로 설명한다. “자기알기”는 ‘주체’로서 자신의 상태를 파악하면서 자기 반성적인 실천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자기배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기계발의 방향을 자신에게 집중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자기계발의 모든 실천들이 긍정적인 자기행복을 위해 나아가야 된다고 믿는 경우이다. “자기통제”란 일종의 규제의 성격으로서 자기계발을 수행하는 경우다. 자신에게 행해지는 통제와 권위 차원의 자기규제가 이에 해당된다. 이를 위해 시간관리, 목표설정, 일일계획,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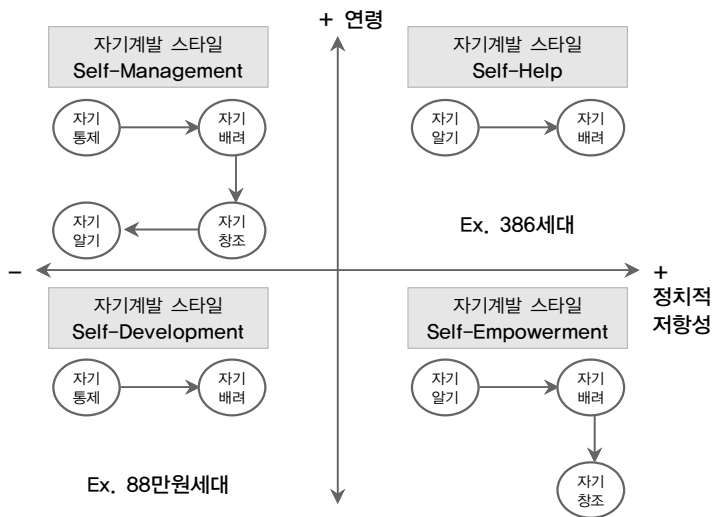
측정 등이 적극적으로 활용된다. 마지막으로 ‘자기재창조’는 자기고백 등을 통해 새로운 정체성을 확인하고 선언하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장희정 2006, 24). 자기계발의 현장에서 이러한 테크놀로지는 온전히 ‘함께’ 작동하는 경우도 있으며, ‘순차적으로’ 작동하기도 한다. 그리고 ‘특정한 테크놀로지만’이 의도적으로 작동하기도 한다.

〈그림 2〉는 I~II 단계 연구과정에서 확인된 세대별 자기계발 스타일이다. 그림을 보면 20대와 386세대를 단순히 특정연령을 설명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위해서 ‘정치적 저항성’이라는 가로축을 바탕으로 세대 ‘내’ 구별을 시켰음을 알 수 있다. 이 네 유형을 설명하는 Self-Management, Self-Help, Self-Development, Self-Empowerment 등은 통틀어 ‘자기계발’로 번역되고 있는데(장희정 2006, 23), 이를 이 연구의 맥락에 맞추어 사용했다. 이 단어들은 뉘앙스에 따라 약간의, 그리고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Self-Help”는 자기계발의 방향성을 순수하게 ‘자신’에게서 찾는 경우이며, “Self-Empowerment”는 즉각적 결과보다 잠재적으로 나타날 무엇에 주목하는 경향이 강할 때를 설명할 때 적합하다. “Self-Management”는 개인을 체계화된 시스템 안으로 넣고자 하는 의지가 뚜렷이 보이는 경우이며,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관리를 거의 기계적인 수준에서 개발(開發)하는 경우를 “Self-Development”라고 할 수 있다.¹⁰⁾

“Self-Management”와 “Self-Development” 스타일은 정치적 저항성이라는 변수를 기준으로 볼 때, 좌측에 위치하고 있다. 여기에는 이 영역의 우측지점과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 그것은 “자기통제”로부터 자기계발 실천 메커니즘이 출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자기를 계발하는 데 있어서 ‘통제’라는 스스로에 대한 구속을 당연시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 구속은 종교적 의미에서의 조건 없는 희생은 결코 아니다.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가 가시적인 영역에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희

10) 본고에서는 이 중 88만원세대와 386세대를 설명할 수 있는 두 지점만을 살펴본다.

〈그림 2〉 세대별 자기계발 스타일



생을 선택했다고 주장한다. 이 중 88만원세대라 할 수 있는 대학생들의 자기계발 스타일에 해당되는 “Self-Development”는 자기통제의 메커니즘이 긍정적인 자아의 계발로 나아갈 것이라는 믿음, 즉 “자기배려”의 상태까지는 이르지만 그 이상으로 확장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즉 “고생하자!(자기통제)”와 “장하다!(자기배려)”만 존재하는 것이다. 서른 살 강술의 주장을 보자.

솔직히 힘들어요. 벌써 5년째 같은 생활이 반복되는 것도 힘들고 토의 공부 등을 그저 점수만 바라보고 하는 것도 짜증나죠. 돈이 없으니 즐기지도 못하고 생활을 쥐어짜는 것도 그래요. 그런데,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취업의 조건이 만들어지지 않으니 어떡해요. 그나마 아직 희망을 갖고 스펙을 채워서 이력서를 넣을 수 있다는 것이 어딘가요. 좋은 일 있을거라 믿어요.

이처럼, 이들에게 자기계발이란 ‘힘든 것’이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스스로를 배려’하는 유일한 수단이 될 뿐이다. 그러나 386세대의 자기계발 스타일을 “Self-Help”의 개념으로 정의하는 것은 이 세대 구성원들이 ‘자아자체에 대한 배려를 가장 우선적으로 설정한 후 자기계발을 실천하기 때문이다. 즉, 외부의 기준에 만족하고자 그것을 따르기 위한 자아수정(self-modification)식의 “자기통제” 메커니즘을 분명히 거부한다. 대신 자기계발의 실천 메커니즘이 “자기알기”를 통한 “자기배려”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면서 철저한 자기존중(self-esteem)의 맥락을 강조한다. 이 스타일의 특징은 ‘실천의 결과’를 굳이 찾지 않는다. (놀랍게도) 결과를 고려하지 않는 자기계발이지만, 그것이 행위자에게는 전혀 무리없이 수행되고 있었다. 마흔 여섯 살의 정성훈의 주장을 보자.

너무 몰랐어요. 학교 다닐 때는 데모만 하고 그래서 진짜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전혀 알지 못했죠. 오히려 그것이 내가 가야할 길이라고 강요는 많이 받았죠. 그때는 항상 결과가 중요했어요. 민주화를 아무리 외쳐도, 독재가 계속되고 있으니 스스로 만족을 하지 못했죠. 그런데 이제 는 이상하게도 그냥 무엇을 한다는 것 자체가 기뻐요. 운동을 해도, 그냥 땀이 좋아요. 예전 같았으면 체중이 얼마 빠져야 되는지, 혹은 목표된 횟수를 하는지가 중요했을 거예요.

정성훈과 강술은 자기계발의 목적에 있어서는 스스로에 대한 위안을 중요시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정성훈은 이를 ‘무엇을 한다는 것’이 아닌, ‘내가 하고 있다는 것’에서 찾고 있었다. “Self-Empowerment” 유형은 “Self-Help” 유형과 출발점은 비슷하다. 다른 점은 <자기창조>라는 구체적인 ‘다음 단계’가 동반되는 것이다. “Self-Help” 스타일이 자아를 배려하는 것만으로 자기계발을 완성시켜준다면, “Self-Empowerment” 스타일은 자아를 배려하는 전략이 “나는 달라졌다”는 일종의 자기선언으로

이어졌다. 이를 ‘역량강화(empowerment)’라는 단어로 표현하는 이유는 종축보다 횡축과의 차이를 강조하기 위해서다. 역량강화는 자기배려의 차원보다는 ‘결과물’이 가시적이지만, 그렇다고 이를 ‘구체적’이라고 할 수 없다. “Self-Empowerment”는 자기계발의 만족을 당장 눈앞의 차원이 아닌 매우 추상적인 미래에서 찾고자 한다. 그래서 이 유형에 해당하는 세대구성원들은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다가오는 미래에는 자신에게 반드시 도움이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자기계발을 수행한다.

중요한 것은 자기계발 수행자들은 스타일에 상관없이, 그 자체를 ‘긍정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자기통제이든 아니든 말이다. 그러나 그 과정은 세대별로 조금 달랐다. 자기계발 수행자들은 단순히 자신들의 ‘실천’자체로 만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긍정적으로 것으로 전환시키는 다른 담론을 고의적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그것은 ‘시간관리(time-management)’에 관한 것이다. 시간 관리는 자기계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평가되는 항목이다(한국성과향상센터 2006). 이러한 중요 항목이 세대별로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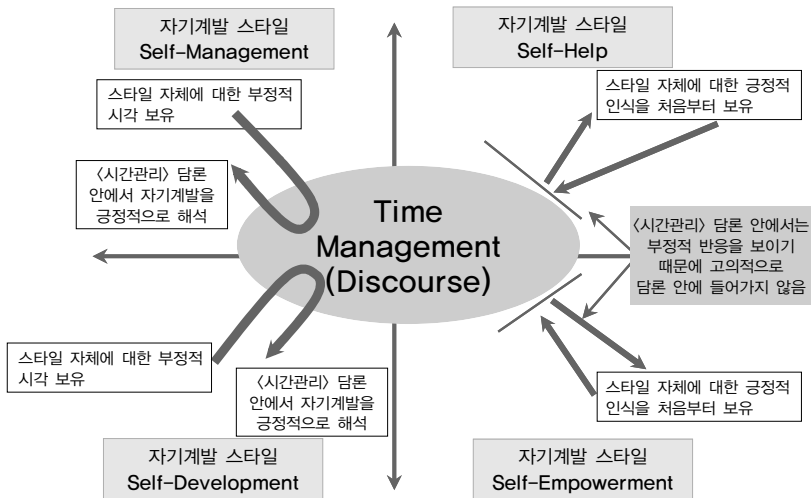
〈그림 3〉은 시간관리 담론을 자기계발 수행자들이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나타낸다. 우선 “Self-Management”와 “Self-Development”의 경우를 살펴보자. 이 스타일들은 자아의 ‘통제’로부터 자기계발을 출발하는 공통점이 있다. 통제는 자기관리이자 일종의 희생이다. 이처럼 자아를 구속하는 자기계발을 수행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수행자들은 ‘힘든 자기계발’을 부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표면적인 모습에 대한 평가로서 자기계발의 의미를 완성하지 않았다. 여기서 ‘시간관리 담론’이 이용된다.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로, “Self-Development”의 박소미의 경우를 통해서 보자.

힘들지만, 매뉴얼에 맞추어서 내 자신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에 자부심을 느껴요. 솔직히 게으른 사람보다는 그래도 이것이 괜찮은 것이잖아요.

이들은 아무리 자아의 희생을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시간을 체계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의 일환이라면 그 자체로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했다. “힘들다! 그러나 이렇게 체계적으로 내가 살고 있잖아!”라는 식이다. 자기에 대한 규제가 시간 관리의 ‘성실성’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자아를 통제함으로써 필연적으로 복잡해지는 시간 관리의 문제가 이들에게는 역설적인 만족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만족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자기에 대한 통제가 더욱 심해진다.

그러나 “Self-Help”와 “Self-Empowerment” 유형의 수행자들은 자기 계발이 실천되는 ‘그 자체’에 우선적인 만족을 표한다. 물론 이는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긍정성’ 차원까지의 만족은 아니다. 고의적인 ‘급 전환 질문’은 이런 경우 매우 유의미하게 사용된다. 나는 앞서 유의미하게 언급된 시간관리 담론이 이들 유형에게는 어떤 의미가 되는지를 고의적으로 확인했다. 반응은 매우 색달랐다. “Self-Help”의 경우를 살펴보자. 유희

〈그림 3〉 시간 관리 담론에 따라 자기계발을 해석하는 스타일



원의 주장이다.

뭐랄까? 이런 것이 있다니까요. 언젠가부터 ‘내’가 제일 소중한 건 느낌.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의 기준이 중요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제가 드림을 배우기로 한 것도 그런 것이었어요. 그냥 두드리고 싶었죠. 예전 같았으면 다른 사람 눈치가 제일 먼저였죠. 그래서 그걸 극복하려고 바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대학 다닐 때, 간부들은 좀 그런 강박관념이 강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것이 제일 자유로워졌어요. 내가 하루에 무엇을 ‘다’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기쁘게 하는 ‘무엇’을 제대로 찾는 것?

이들은 자신들의 자기계발 실천모습이 ‘시간관리’라는 차원에서 해석되는 것을 매우 불쾌하게 생각했다. 오히려 이들에게 자기계발은 사람들을 기계적인 부품으로 만드는 시간 관리의 오만함을 극복하기 위해 선택된 일종의 탈출구로서 의미가 있다. 이 지점은 이들이 자신들의 자기계발 스타일에 긍정성을 매우 적극적으로 부여하는 순간이 된다. 이들은 시간관리 담론과 대척점에 있는 자신의 자기계발 모습을 확인하면서 스스로에게 만족을 느낀다. 이처럼, 자기계발 수행자들의 ‘긍정성’은 어떤 식으로든 시간관리 담론을 축으로 설명될 수 있다. “Self-Management”, “Self-Development” 유형은 자아가 통제된다는 것을 일종의 시간 관리의 효율성으로 해석하며, “Self-Help”, “Self-Empowerment” 유형은 본인의 자기계발 실천을 시간관리 담론과 거리를 두면서 긍정적으로 해석한다.

5. 민주주의 이슈에 대한 대학생들의 반응

자기통제, 이른바 “Self-Development” 스타일을 추구하는 대학생들은 자기규율적인 자기계발을 시간관리 담론 안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시간관리’ 담론은 타인과의 비교를 더욱 뚜렷하게 한다. 그 비교의 압박은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도태되지 않도록 ‘늘’ 자신을 계발(물론 이 연구에서는 개발)하게 한다. 자, 그렇다면 처음의 물음으로 돌아가자. 이러한 자기계발 스타일을 구축하고 있는 세대들이 과연 노동문제와 관련된 사회적 이슈에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리고 그 반응의 메커니즘을 자기계발 스타일로부터 유추하는 것은 가능할까? 이를 확인하기 위해 세 가지 사회적 이슈에 주목했다.¹¹⁾ 먼저 2010년 4월 발생한 조선대학교 시간강사 자살에 관한 반응을 <표 3>과 같이 확인했다.

이 이슈를 택한 이유는 대학생들이 바로 시간강사를 늘 접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주제에 비해서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을 자살에 대한 심정, 고인이 폭로한 논문대필에 관한 입장, 시간강사 처우와 관련된 환경적 문제, 그리고 교수 채용 시 금전요구 문제, 그리고 교수채용이 어려운 한국사회의 구조적 문제로 구분하여 접근했다. 그리고 이를 그들의 양가적인 대답패턴으로 <표 3>과 같이 정리했다. 대학생들은 논문대필이라든지 교수 채용 시 금전요구 등에 대해서는 아주 흥분했다. 주목할 지점은 88만원세대가 보수적으로 반응을 보이는 사안이다. 여기서 그 이유를 ‘스스로의 선택’, ‘객관적인 실력차’라는

11) 그러나 비슷한 연구틀로서 진행된 이전 연구와 달리 2010년도의 연구는 예상과 다른 분위기로 인해서 원래의 목적대로 인터뷰를 진행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다. 이는 2010년 3월의 천안함 사건과 6월의 지방선거의 영향 때문이었다. 전자의 분위기가 한창일 때는, 인터뷰이들이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으로 급선회하는 모습이 잦았다. 후자의 경우는 반대로, 지나치게 낭만적인 진보성향의 인터뷰이들이 속속 등장했다. 이러한 환경이 인터뷰를 방해했다는 것을 밝히는 것은 연구자에게 실(失)이 되는 행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백하는 이유는 이러한 환경적 요소를 개방하는 것 자체가 정성적 연구로서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표 3〉 시간강사 자살과 관련한 88만원세대의 반응

진보적 입장들			보수적 입장들	
자살 사건	논문 대필	교수 채용 시 금전요구	시간강사 처우개선	교수채용 자체의 문제
매우 슬픈 일	매우 잘못된 일	당장 시정되어야 할 일	공감은 하지만 무조건적인 주장은 이해가 안 됨. 사실상 시간강사의 환경, 인문사회 교수채용문제는 오래전부터 있었고 이를 알고 선택한 길인데 억지 주장을 하면 안 됨. 또한 교수와 시간강사의 실력차이는 엄연한데 그 실력차이가 부당한 조건으로서는 이어져서는 안 되지만 이것이 객관적인 처우와 임용의 문제와 연계되어서는 안 됨.	

지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알고 선택한 길”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이는 스스로 투자한 ‘시간’에 대한 강조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시간강사가 교수임용을 시위형태로 제기하는 것은 일종의 ‘뺑강 부리기’에 지나지 않아 보인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가시적인 지위 차이가 일련의 ‘정당한 경쟁을 통해서 형성된 것’이라는 합의가 존재한다. 이는 앞서 살펴본 이 세대의 자기계발 스타일과 이를 설명하는 경험의 성층화의 맥락과 아주 일치한다.

다음은 KEC 노조 파업에 관한 것이다. 지난 연구에서 쌍용자동차 파업을 효과적으로 활용한 바 있어서 이번에도 대규모 농성에 주목했다. 그래서 근래에 가장 큰 파업이라 할 수 있는 구미시의 반도체회사 KEC 노조파업을 주요한 이슈로 활용했다.¹²⁾ 특히 쌍용자동차가 ‘정리해고’라는 명백한 세부적 테마가 존재했던 것처럼, KEC 파업 역시 ‘타임오프제(근로시간면제 한도제)’를 둘러싼 노사 간의 갈등이 매우 명백하게 존

12) 그러나 쌍용자동차가 ‘전국적 관심’을 받았기에 인터뷰자가 이 이슈에 대한 개괄적 내용은 어느 정도 숙지하고 있었던 것에 비하여, KEC 파업문제는 잘 알려지지 않아서 인터뷰 때마다 관련 내용을 설명하는 데 많은 시간이 투자되었다.

〈표 4〉 타임오프제에 대한 88만원세대의 반응

진보적 입장		보수적 입장	
노조자체에 대한 입장	사측의 노조탄압	노조 유금임금	타임오프제 자체 (전임노조제한)
당연히 찬성	매우 잘못된 일	약한 반대	강한 찬성: 일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급여를 받을 생각을 하는가. 남들은 열심히 일하는 시간에 그 일을 하지 않고 남들보다 동일 급여를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음

재했다는 점이 나의 눈길을 끌었다.

〈표 4〉에서 확인될 수 있는 것처럼, 88만원세대는 노조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다. 또한 사측의 노조탄압, 예를 들어 직장폐쇄, 용역경비 투입 등의 문제를 매우 부정적으로 이해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대학생이 ‘전임노조’라는 개념조차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들에게 노조란 일하는 노동자들 중 몇 명의 대표 정도의 개념이었다. 그래서 전임노조를 자세하게 설명하자 많은 대학생들이 (매우 놀란 표정으로) “그건 정당하지 못한 급여”임을 명확히 말했다. 이유는 ‘급여’를 받을 정당한 시간이 투자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아무리 ‘노조’라는 노동을 하지 않느냐고 말해도 대답은 초지일관이었다. 노조라는 활동은 지극히 당연하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생산직에서 일을 하고 급여를 받는 그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이른바 ‘정당하지 못한 급여’라는 개념이었다. ‘시간’에 특정한 의미를 부여하는 이들의 태도는 앞서 살펴본 자기계발 스타일을 충분히 떠올려볼 수 있게 한다. 그래서 이들은 ‘타임오프제’라는 정부정책에 대해서도 지극히 ‘바람직하고 당연한’것으로 이해했다.

마지막 대학교 내 비정규직 환경미화원과 관련된 입장이다. 이를 주요한 이슈로 선정한 이유는 이 연구가 시작단계부터 사실상 전제하고 있는 대학생들의 ‘보수적 노동관’과 사실상 반대되는 사례였기 때문이다(시

사 IN 122호). 최근의 분위기를 보면 놀랍게도 대학생들은 교내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식은 매우 우호적인 듯하다. 지난 2008년 성신여대 환경미화원 복직투쟁에 학생 6,500명 서명(재학생 9,000명), 덕성여대는 3,500명 서명(재학생 7,000명), 2009년도에는 고려대에서 3일 만에 1만 명이 서명하는 놀랄만한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를 계기로, 88만원세대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연대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등의 여러 긍정적 담론이 야기되었다.

하지만 정성적 방법은 이런 ‘분위기’가 자칫 놓칠 수 있는 세밀한 부분을 포착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수치적인 분위기는 지금의 대학생들이 1980년대보다 ‘더한’ 노동자 연대의식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듯하다. 하지만 이걸 매우 감성적인 해석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대학생들이 아무리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머니뻘 되는 ‘환경미화원 할머니’와 관련된 문제에 본인의 가치관을 직접적으로 투사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할머니들을 도와줍시다!”라는 서명을 마다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이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의 서명이 ‘의미 있는 찬성’이라고 할지라도 그 찬성이 과연 어디까지냐 하는 것이다. <표 5>는 이를 다양한 지점에서

<표 5> 대학교 내 환경미화원 문제에 대한 88만원세대의 반응

긍정적 입장			부정적 입장	
급여인상	인력충원	부당해고	정리해고 자체	정규직 전환문제
찬성	찬성	반대	해고를 집행하는 방식은 문제삼을 수 있으나 사 측에 정리해고 자체를 문제삼을 수 없고, 직원에 대한 부당한 대우는 문제삼을 수 있으나 이것이 정규직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경우가 다름.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일련의 객관적 능력에 따른 정당한 차별이기 때문. 만약 이것이 문제라면 고용시스템을 문제삼아야 함. 그러지 않고 비정규직으로 입사해서 정규직을 요구하는 것은 순서가 틀렸음	

확인한 것이다.

교내 환경미화원에 대한 폭발적인 옹호여론과는 조금 다르게, 정성적 연구에서는 무엇을 긍정했는지, 그리고 그 긍정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명확하게 드러났다. 특히나 부당해고와 정리해고를 구별하는 지점이 확실하게 나타났다. 즉 “갑작스런 해고통보” 등은 분명한 문제지만 “정리해고 자체”에 대해서는 오히려 긍정을 하고 있었다. 여기서도 ‘이유’는 아주 명확했다. 우선은 비정규직 자체를 ‘능력에 따른 차별적 대우’라는 차원에서 이해했다. 능력이라는 것은 ‘시간에 대한 정당한 투자’를 말하는 것이다. 즉, 동일한 시간에 대한 다른 능력이 검증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직급의 차별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니, 이걸 뛰어넘는 요구, 즉 ‘정규직 전환’이라는 것은 이 글의 맨 처음 언급된 “날로 정규직 되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하고 일맥상통한 지점이 된다.

6. 나가며: “왜 이렇게 되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기초적 가설¹³⁾

『88만원세대』의 저자 우석훈·박권일(2007)은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20대끼리 ‘개미베들’을 벌이는 사회에 주목한다. 그리고 그 구조에 완전히 20대가 완전히 잠겨 있음에 절망한다(우석훈 2008). 이 연구에서는 “Self-Development” 유형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들의 삶은 끊임 없는 경쟁만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남보다 다른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가”만을 고민한다. 실상 그것이 별다른 도움이 안 되더라도 끊임 없이 자기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강박증에 시달린다. 취업포털 ‘사람인’

13) 여기서의 논의 중 일부는 연구자의 이전 글과 중복된다(오찬호 2010c, 67-72).

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학생의 89%가 학생 사이의 경쟁이 치열하다는 것을 체감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97%가 이에 스트레스를 받는다(아주경제 2011/04/21).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앞서 확인되었던 ‘시간 관리를 위한 자기통제식 자기계발’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이들의 낭만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시간 관리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결국 자기계발의 기준이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서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내가 (남들과 다르게) 어떻게 시간을 보냈는데!”라는 상대적 만족감일 뿐이다.

하지만 대학생들에게는 이러한 인식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다. 그만큼 이 세대들은 ‘비교’를 통해서 스스로를 완성시키는 데 아주 익숙하다. 왜냐하면 이들은 비교, 그러니까 남을 ‘평가절하’하여 스스로에게 만족을 주는 행동을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학습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만하임이 설명하는 ‘경험의 성층화’ 개념을 상기하자. 이 개념을 활용하면 대학생들이 현재의 신자유주의 시대적 상황을 모순적으로 바라보지 않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럽도록 유년 시절부터 반복적으로 학습된 것에 불과하다는 논리를 이끌어낼 수 있다. 그래서인지, 현재의 20대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1990년대 후반의 IMF 상황으로부터 이 세대를 설명하고자 한다(송호근 2010, 22).

대학을 갓 졸업한 20대, 그리고 그들보다 약간 나이가 많은 30대 초반의 이 땅의 젊은이들은, 아버지들이 줄줄이 직장을 잃고 거리를 헤매는 모습을 지켜봐야만 했던 세대이다. 평범한 회사원이 되는 대신 자신의 꿈을 좇는 것을 이상으로 알고 살다가, 하루아침에 그 모든 토대가 무너지는 광경을 목격하고야 만 것이다(노정태 2008).

노정태의 언급은 지금의 대학생들에게 어떤 생존본능이 체화되어 있는가를 짐작케 한다. 20대의 현실을 생생하게 묘사했다는 김애란의

소설 『베타별이 자오선을 지나갈 때, 내게』의 한 구절을 보자. “되고 싶은 것? 대학생. 존경하는 사람? 대학생. 네 꿈도, 내 꿈도 그러니까 대학생과 ‘좃나’ 똑같은 대학생”(김애란 2006, 69) 이처럼 이들은 자라면서 생기발랄한 꿈들을 ‘당연히’ 기각한다.

문제는 이러한 심리적 압박에서 행위자는 ‘불안감 해소’의 무엇을 찾는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IMF로 인해 객관적으로 불안해진 가족을 붙들고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다(홍지선 2010, 17-31). 그래서 이러한 불안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 ‘타인’을 발판삼아 자신을 위로하는 방법을 취한다. 이런 의미에서 90년대 후반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던 초·중·고등학생들의 ‘왕따 문화’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아래는 1987년에 태어난 대학생이 당시의 왕따현상을 소회한 것이다.

1998년 혹은 그 비슷한 시기에 집단따돌림을 당한 사람은 나 말고도 많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건 큰 위안이었다. 지금 돌이켜 보건대 집단따돌림을 만들어낸 가장 큰 책임은 그 당시의 우울한 분위기에 있었다. 사람들은 자기가 낙오자가 될까봐 불안한 나머지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을 그 자리에 세우고 싶어 했다. 누군가는 낙오자가 되어야만 했다. 그래야만 절대다수의 사람들이 자신이 낙오자가 아님을 확인하고 안도할 수 있을 테니(홍지선 2010, 20)

앞서 살펴본 자기계발 스타일을 생각해보자. 통제를 스스로에 대한 ‘배려’로 생각하는 모습. 그리고 이러한 통제를 불편해하면서도 ‘관리된다는’ 것에 오히려 위안을 삼는 모습. 이것은 철저한 비교우위를 통해 내적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를 IMF 시대의 상황으로부터 형성된 경험들의 성층화 과정 속에서 구축되었다고 유추하는 것은 지나친 것일까? 유년기 시절부터의 특정한 메커니즘의 반복은 결국 행위자에게 친숙한 행동으로 체화된다. 그래서 “비교를 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한 반감은

언젠가부터 자연스레 사라지기 시작한다. 스물여덟 살 오제호는 “남들보다 열심히 살았다는 증거이잖아요”라고 한다. 이는 시간 관리의 차원에서 내적 만족을 추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타인을 평가하고 있음을 말한다. 시간관리 담론에 집착한다는 것은 이른바 ‘스펙’이라는 것을 정당한 비교 기준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스펙이야말로, ‘절대적 시간’의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아래의 인용은 이를 적나라하게 증명한다.

더 무서운 점은 이제 ‘지원 자격 토의 000점 이상’이란 조건에 더 이상 반감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노력과 성실성을 따지는 정당한 기준이다, 억울하면 공부하든지! 그렇게 나는 내 안의 괴물을 봤다. 학벌도, 외모도, 가정형편도, 그 외의 스펙도 이런 식으로 분명 정당화됐을 것이다(박은하 2010, 99).

앞서 언급된 논의에서 대학생들은 특정한 지점에서는 진보적인 노동관을 보여주지만, 몇 가지 뚜렷한 상황에서는 매우 보수적인 입장을 아주 일관되게 보여준 바 있다. 특히, 비정규직 직업에 대해서는 ‘어쨌든 선택한 본인의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즉 본인이 선택한 것을 ‘넘어서는’ 요구는 무리라는 것이다. 여기에는 정당한 시간 관리의 결과를 존중해야 된다는 뜻이 담겨 있다. 노동자의 ‘처우’ 문제는 사용자의 의무라는 측면에서 잘못되었음을 분명히 말하지만, 노동자의 현재의 지위 자체는 본인이 경쟁사회를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는 인식을 대학생들은 분명히 밝혔다. 지독한 취업경쟁에서 이들에게 구축된 자기계발 메커니즘은 ‘엄격한 개인규율’을 따르는 것이었다. 이 상황은 이들이 비정규직 종사자들을 ‘개인규율이 엄격하지 못해’ 정규직으로 진입하지 못한 경우로 이해하게끔 했다. 이 연구는 대학생들이 이런 식으로 자기계발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일상의 여러 이슈를 해석하는 모습을 포착하고자 했다.¹⁴⁾

참고문헌

- 권오현. 2005. “IMF 이후 성공학 서적의 유행과 출판·독서 시장.” 『한국사회』 7-2.
- 김애란. 2006. “베타별이 자오선을 지나갈 때, 내게.” 『작가가 선정한 오늘의 소설(2006)』.
- 김정은. 2007. “‘자기 돌봄’으로서의 자기계발: 자기계발서 독자들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박길성. 2003. 『한국 사회의 재구조화: 강요된 조정, 갈등적 조율』. 고려대학교 출판부.
- 박소진. 2009. “‘자기관리’와 ‘가족경영’ 시대의 불안전 삶: 신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적 주체.” 『경제와 사회』 84.
- 박은아. 2010. “취업준비생, 괴물도 나오자도 되지 않기 위해.” 문수현 외. 『이십대 전반전: 불안을 강요하는 세상에 던지는 옐로카드』.
- 변희재·여원동. 2008. 『코리아 실크세대 혁명서』. 생각나눔.
- 서동진. 2005. “자기계발의 의지, 자유의 의지: 자기계발 담론을 통해본 한국 자본주의 전환과 주체형성.”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송호근. 2009. “청년세대를 위한 사회과학.” 송호근 외. 『위기의 청년세대: 출구를 찾다』.
- 안철환. 2000. “386세대, 그들의 좌절과 희망.” 『월간 말』 168.
- 오찬호. 2007. “미술관의 사회학은 왜 필요한가?: 미술관에 대한 질적 연구가 제시하는 사회학적 의문.” 『사회과학연구』 15-2.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4) 그렇다면 386세대가 시간관리 담론을 거부하는 모습은 어떤 경험의 성층화 과정과 연결될 수 있을까? 서동진(2005)은 이들의 80년대에 신자유주의 담론을 어떻게 거부했는지를 설명한다. 당시의 대학생들은 지식기반사회로 진입하기 위해서 주체가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는 일종의 지금과 같은 ‘자기계발’ 담론을 ‘뜬금없는 수사’로 받아들였다. 충분히 지금의 〈Self-Help〉 스타일이 시간관리 담론 자체를 버거워하는 이유와 연결될 지점이다. 자아의 구속, 관리, 통제와는 거리를 두는 이들의 자기계발 스타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경험의 성층화’를 이런 맥락에서 짚어 보아야 할 듯하다.

- _____. 2009. “공포에 대한 동년배 세대의 상이한 반응: 2008년 촛불시위에서 20대를 이해하는 몇 가지 가설.” 『한국청소년연구』 20-2.
- _____. 2010a. “후기청소년 세대들이 ‘민주주의 이슈’를 이해하는 방식에 대한 연구.” 『기억과 전망』 22.
- _____. 2010b. “88만원 세대를 읽어내는 딜레마: 세대 ‘내’ 경쟁에서 패배한 이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는 이유.” 『문화과학』 63.
- _____. 2010c. “소외된 세대에 대한 복원: 386세대 ‘내’에 대한 세대사회학적 접근.” 『사회과학연구』 36-2.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우석훈. 2008. “왜 88만원 세대는 저항하지 않는가.” 『내일을 여는 역사』 21.
- 우석훈·박권일. 2007. 『88만원 세대: 절망의 시대에 쓰는 희망의 경제학』. 레디앙.
- 은수미. 2003. “의식화조직, 사회운동, 그리고 대항이데올로기: 70·80년대 학생운동의 소규모 ‘의식화조직’을 중심으로.” 김진균 편저. 『저항, 연대, 기억의 정치 1』. 문화과학사.
- 이명진. 2005. 『한국 2030 신세대의 의식과 사회정체성』. 삼성경제연구소.
- 장희정. 2006. “자기계발의 시대, 프랭클린 플래너 유저 모임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전상진. 2008. “자기계발의 사회학: 대체 우리는 자기계발 이외에 어떤 대안을 권유할 수 있는가?” 『문화와 사회』 5.
- 전상진·정주훈. 2006. “한국 후기청소년 세대의 발달경로와 성장유형: 서울 지역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0-6.
- 한국성과향상센터. 2006. 『프랭클린 플래너를 쓰는 사람의 시간은 다르다』. 바다출판사.
- 홍지선. 2010. “왕따가 되어주마.” 문수현 외. 『이십대 전반전: 불안을 강요하는 세상에 던지는 옐로카드』.
- Barber, Benjamin R. 1996. “Foundationalism and democracy.” In *Democracy and Difference: contesting the boundaries of the political*. Seyla Benhabib (ed.). Princeton University Press.
- Berger, P. 1963. *Invitation to sociology: a humanistic perspective*. Harmondsworth:

Penguin.

- Chappell, C. et al. 2003. "Pedagogies for personal change in the 'self-help' literature." pp.57-70 in Chappell, C. et al. (eds). *Reconstructing the Lifelong Learner*.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Falmer.
- Edward, R. 2002. "Mobilizing Lifelong Learning. Governmentality in Educational Practices." *Journal of Education Policy* 17. 3.
- Foucault, M. 1991. "Governmentality." In L. H. Martin, H. Gutman and P. Hutton (eds.). *The Foucault Effect: Studies in Governmentality*. Harvester Wheatsheaf.
- Hazleden, R. 2003. "Love yourself: the relationship of the self with itself in contemporary relationship manuals." *Journal of Sociology* 39. 4.
- Kertzer, D. I. 1983. "Generation as a sociological problem." *American Review of Sociology* 9. 125-149.
- Lichterman, P. 1992. "Self-help reading as a thin culture." *Media, Culture and Society* 14.
- Mannheim, K. 1997. "The Problem of generation." In Melissa A. Hardy (ed.). *Studying aging and social change: conceptual and methodological issues*.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s.
- Rimke, H. 2000. "Governing Citizens through Self-help Literature." *Cultural Studies* 14. 1.
- Rose, N. 1998. *Inventing ourselves: Psychology, Power and Personhoo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경향신문』, 2008/08/06. "검먹은 20대와 '쇼크 독트린'."(노정태)
- 『문화일보』, 2007/08/16. 방승배. "직장인 10명중 7명 '자기계발 강박증'."
- 『시사 IN』, 122호(2010/01). "대학 상대로 연전연승하는 할머니 노동자"(고재열)
- 『아주경제』, 2011/04/21. "대학생 89% '학생 간 경쟁 치열함 느껴'."
- 『조선일보』, 2011/02/23. "예비 대학생 54%, 입학 전부터 '취업걱정'."

투고: 2011.4.4 심사: 2011.5.11 확정: 2011.5.16